

고구려 패망과정의 위기관리 연구

- 보장왕 시대의 나당의 간접전략과 고구려의 국력요소를 중심으로 -

김태진*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
 - 1. 보장왕 통치시대 선행연구
 - 2. 이론적 근거
- III. 보장왕 시대의 위기관리 분석
 - 1. 보장왕 시대의 위기관리 단계
 - 2. 보장왕 시대의 위기단계별 나당의 간접전략과 고구려의 국력요소
 - 3. 예방단계의 위기관리(연개소문 집권기)
 - 4. 대비단계의 위기관리(연남생 집권기)
 - 5. 대응단계의 위기관리(연남건 집권기)
 - 6. 복구단계의 위기관리(부흥군의 부흥운동, 보장왕의 부흥 도모)
- IV. 고구려의 패망에 대한 분석과 안보적 함의
 - 1. 고구려의 패망에 대한 분석
 - 2. 안보적 함의
- V. 맺음말

【국문초록】

고구려는 668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패망하였다. 고구려의 멸망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으나 연개소문의 등장과 그 아들들의 내분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역사학계의 보편적 관점이다. 반면 고구려의 패망과정을 위기관리 이론으로 접근한 연구는 확인하기가 제한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즉위로부터 고구려 멸망 후 보장왕에 의한 부흥운동에 이르는 시대를 위기관리 이론으로 분석하였고, 고구려를 패망시킨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초빙교수

나당은 간접전략으로 어떻게 고구려의 국력요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였다. 보장왕의 26년 재위 시대와 고구려 멸망 후 13년간의 부흥운동 기간을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의 4단계인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분하여 나당의 간접전략(Indirect strategy)이 각 단계별로 고구려의 국력요소(DIME)인 외교·정보·군사·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 패망원인의 현상이 현 한반도 안보 상황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고구려는 나당의 간접전략에 의한 내분이 원인이 되어 직접전략인 전쟁에 대비하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보장왕 재위 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한 연개소문이 막리지로 있던 기간은 당나라와 동북아 패권을 다투는 전쟁을 진행하였다. 연개소문 사후 장남 남생이 막리지로 있던 기간은 내부분열로 아들들 간의 다툼이 진행되어 나당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였다. 차남 남건이 막리지로 있던 기간에 나당과 전쟁이 발발하여 고구려는 대응을 하였으나 국력요소의 대비와 대응이 부실하여 멸망하게 된다. 고구려의 복구를 위한 부흥운동 1단계는 안승과 검모잡에 의해 군사적 부흥운동으로 전개되었고, 부흥운동 2단계는 요동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당에 의해 파견되어온 보장왕이 부흥을 도모하던 중 당에 발각되어 실현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고구려의 패망을 위기관리 이론을 적용하여 보장왕의 통치시대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단계별로 분석한 것이다. 둘째,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한 적국의 간접전략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적국의 간접전략에 따라 고구려의 국력요소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도출한 것이다.

고구려 패망과정의 위기관리 연구를 통해 국가의 패망은 내부적 요인도 있지만, 그 국가를 무너뜨리려 하는 적국의 간접전략에 의해 외부적으로 조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패망은 동일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음을 확인하여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의 교훈으로 삼아야 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 보장왕, 연개소문, 위기관리, 간접전략, 국력요소

I. 머리말

고구려는 668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보장왕이 평양성에서 항복을 함으로써 패망하였다. 고구려가 패망한 원인에 대해 연구결과들이 다양하지만 위기관리 관점에서 분석된 내용은 확인하기가 제한된다. 따라서 고구려가 왜 패망했는지에 대해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의 4단계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로 나당이 고구려에 시행한 간접전략과 그 결과 고구려의 국

력요소는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보장왕은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뒤 연개소문에 의해 642년에 즉위하여 668년 고구려 패망 시까지 26년간 통치하였다. 보장왕의 통치시대는 연개소문이 23년간 실제적 권력을 행사하던 시기와 연개소문 사망 이후 장남 연남생이 대막리지로 1년간 통치하던 기간, 차남 연남건이 대막리지로 2년간 통치하며 나당연합군과 전쟁으로 패망하는 때까지이다. 보장왕은 고구려 멸망 이후 당나라에서 살다가 요동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677년 당에 의해 요동지역에 파견되어 역할 하던 중 부흥운동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공주(邳州)¹⁾지역으로 유배된 후 1년 뒤 사망함으로써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고구려의 패망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보장왕의 통치시대와 부흥운동이 종료되던 때까지를 총체적 위기관리이론에서 제시하는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분하였다. 또한 고구려와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던 당나라가 고구려를 대상으로 시행한 간접전략과 나당연합으로 고구려를 상대했던 신라의 간접전략은 무엇이며, 이러한 나당의 간접전략이 고구려의 국력요소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고구려의 패망이 7세기 한반도 고대사의 한 부분이지만 21세기 현재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별 대치 구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당나라는 현재의 중국으로 대체되었고, 고구려 지역에는 북한이, 신라가 점령했던 지역은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 당시에는 신라가 나당동맹으로 당나라와 우호관계 속에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7세기에는 미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국가간 관계를 현재의 안보상황과 구도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나 국가간의 관계, 특히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에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중국과 동맹이 아니며, 사안별로 협조와 긴장관계가 공존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북한과 중국이 한국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간접전략의 행태를 도출하여 대비해야 함을 제시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²⁾라고 주장한 학자의 논리를 근거로 한반도 고대사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의미를 추출하기 위하여 대화하는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역사연구자들의 문헌을 근거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역사학적 연구를 군사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기관리와 간접전략, 국력요소 이론을 제시했다. 제3장은 보장왕 시대를 위기관리 단계별로 나당의 간접전략은 무엇이었고, 고구려의 국력요소는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제시하였다. 제4장은 고구려의 패망에 대한 분석과 안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5장은 논문의 결론과 한계를 정리하였다.

1)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당 개요 원년.(공주(邳州)는 현재의 중국 쓰촨성(四川) 충시아현(邳峽縣)이다.)

2) E.H.카, 2015, 46쪽.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

고구려의 패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1차 사료인 『삼국사기』의 기록과 2차 자료인 역사학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확인하였다. 연개소문의 등장과 보장왕의 옹립, 연개소문이 당에 대해 취한 외교·군사적 입장과 신라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 연개소문 아들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내용과 보장왕이 평양성에서 항복하는 과정을 확인한다. 또한, 역사학적 연구 결과를 군사학적 이론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위기관리와 간접전략, 국력요소 이론을 제시한다.

1. 보장왕 통치시대 선행연구

『삼국사기』에 기록된 보장왕의 등장과 연개소문의 정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① 보장왕(寶臧王)은 이름이 장(臧)이고, 나라를 잃은 까닭에 시호가 없다. 건무왕(建武王)³⁾의 아우인 대양왕(大陽王)의 아들이다. 건무왕 재위 25년째 되던 해에(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하고 장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王諱臧 或云寶臧., 以失國故無諡. 建武王弟大陽王之子也. 建武王在位第二十五年, 蓋蘇文弑之, 立臧繼位.)⁴⁾

A-①은 보장왕이 어떻게 왕위에 즉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보장왕은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시해하고 옹립되었다. 따라서 보장왕의 통치력은 미약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역사학계에서는 642년 연개소문의 등장이 고구려의 쇠퇴와 멸망을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다.⁵⁾ 이 연구에서는 그 근거를 연개소문의 정변과 집권이 당의 고구려 침략의 가장 중요한 빌미가 되었고, 많은 논자들이 그것을 고구려 멸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고구려 후기가 642년의 연개소문의 정변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눌 수 있다는 제안이나 연개소문의 집권으로 기존의 귀족연립체제가 붕괴된 것으로 보는 주장까지 나와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B-① (11년(642)) 고장(高臧)⁶⁾이 그 말의 불손함에 화가 나서 그를 별관(別館)에 가두었다. 춘추가 몰래 사람을 시켜서 본국의 왕에게 알리자, 왕은 대장군(大將軍) 김유신(金庾信)에게 명하여 결사대 10,0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하였다. 유신이 행군하여 한강(漢江)을 넘어 고구려의 남쪽 경계에 들어가자 고구려의 왕이 이를 듣고 춘추를 놓아 돌려보냈다. (臧怒其言之不遜,

3) 제24대 영류왕을 말한다.

4) 『삼국사기』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원년.

5) 이문기, 2008, 61쪽.

6) 고구려 보장왕(『삼국사기』에서는 김춘추와 대화한 사람을 보장왕으로 기록함.)

囚之別館. 春秋潛使人告本國王, 王命大將軍金庾信, 領死士一萬人赴之. 庾信行軍過漢江, 入高句麗南境, 麗王聞之, 放春秋以還.)⁷⁾

B-② (2년(643) 1월)사신을 보내 당에 가서 조공하였다.(遣使入唐朝貢.)⁸⁾

B-③ (5년(646) 5월)(이후에 연개소문이) 오히려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졌다. 비록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지만 그 말이 거칠고 모두 거짓이었다. 또한 당 사신을 대우하는 데 거만하였고, 항상 변방에 빈틈이 있는지 엿보았다. 여러 차례 칙령을 내려 신라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침략을 멈추지 않았다. [당] 태종이 조서를 내려 그 조공을 받지 말도록 하고, 다시 토벌할 것을 논의하였다.(而又益驕恣. 雖遣使奉表, 其言率皆詭誕. 又待唐使者倨傲, 常窺伺邊隙. 屢勅令不攻新羅, 而侵凌不止. 太宗詔勿受其朝貢, 更議討之.)⁹⁾

B-④ (15년(656))겨울 12월에 사신을 보내 당에 가서 황태자 책봉을 축하하였다.(冬十二月, 遣使入唐, 賀冊皇太子.)¹⁰⁾

B-①은 보장왕 즉위 초인 642년에 신라의 김춘추가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군에게 패배¹¹⁾한 이후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과 보장왕이 죽령 이북의 땅을 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 김춘추의 답변이 불손하여 화가 난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보장왕이 김춘추를 별관에 가두자 김유신이 출동함으로 김춘추가 풀려난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고구려가 신라와의 관계를 긴장국면으로 만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¹²⁾ 즉, 연개소문 정변이후 보장왕 즉위 초기에 신라가 기존에 점령했던 고구려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B-②는 보장왕 즉위 초에는 고구려가 당에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통해 외교적 안정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B-③은 연개소문이 교만하여져 당 태종이 645년 고구려 공격 시 안시성을 점령하기 전에 당나라 장군 이적에게 말한 것이다. 이 공격은 연개소문이 당과의 외교적 해결보다는 전쟁을 통한 국면전환을 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B-④는 고종의 황태자 책봉을 축하하는 사신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즉 고구려는 당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외교적 화친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연개소문이 집권¹³⁾하고 있던 기간은 당과의 관계에 있어 군사적 긴장관계도 있었지만,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위기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개소문의 강력한 통제력이 작동 된 측면이 있다. 한편, 이러한 고구려의 대응을 부적절하게 인식한 나당이 간접전략으로 고구려 내부를 침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래와 같다.

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8)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2년.

9)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5년.

10)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5년.

11) 김춘추는 642년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군에게 딸과 사위를 잃고, 신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구려에 청병을 가게 되었다.

12) 임기환, 2014, 23쪽.

13) 집권기간 동안 명칭은 막리지(642~644), 대막리지(644~661), 태대대로(661~665)로 부여됨.

C-①(25년(666))개소문이 죽고 장자인 남생이 대신 막리지가 되었다. 처음 국정을 맡고 여러 성에 나아가 순행하면서, 그의 동생 남건(男建)과 남산(男産)에게 남아서 뒷일을 맡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두 동생에게 말하기를, “남생은 두 아우가 핍박하는 것을 싫어하여 제거하려고 하니 먼저 계책을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두 동생이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이 남생에게 알리기를, “두 동생은 형이 돌아와 그 권력을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형을 막고 들이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남생이 몰래 친한 사람을 보내 평양에 가서 그들을 살피게 하였는데 두 아우가 그를 붙잡았다. 이에 왕명으로 남생을 불렀으나 남생은 감히 돌아오지 못하였다. 남건이 스스로 막리지가 되어 병력을 내어 그를 토벌하니 남생이 달아나 국내성에 응거하면서 그 아들 헌성(獻誠)에게 당에 나아가 구원을 청하게 하였다.(蓋蘇文死, 長子男生代爲莫離支. 初知國政, 出巡諸城, 使其弟男建·男産留知後事. 或謂二弟曰, “男生惡二弟之逼, 意欲除之, 不如先爲計.” 二弟初未之信. 又有告男生者曰, “二弟恐兄還奪其權, 欲拒兄不納.” 男生潛遣所親, 往平壤伺之, 二弟收掩得之. 乃以王命召男生, 男生不敢歸. 男建自爲莫離支, 發兵討之, 男生走, 據國內城, 使其子獻誠, 詣唐求哀.)¹⁴⁾

C-①은 연개소문이 사망한 이후 장남 연남생과 동생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아들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 인원은 ‘어떤 사람’ (或)으로 제시되고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어떤 사람’에 대해 내부 권력다툼과정에 있는 귀족으로 연구한 바 있다.¹⁵⁾ 이번 연구를 통해 이 ‘어떤 사람’이 신라 또는 당나라의 간접전략을 통해 고구려 내부에 침투한 간자(間者)일 수도 있음을 제시한다. 고구려 패망과정의 주요한 국면으로 볼 수 있어서 위 내용은 『삼국사기』의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였다.

D-① 보장왕이 천남산을 보내 수령 98인을 거느리고 백기(白旗)를 가지고 이적에게 나아가 항복하게 하였는데, 이적은 이들을 예로써 접대하였다. 천남건은 여전히 문을 닫고 항거하여 지키면서, 자주 병력을 내보내 싸웠으나 모두 패하였다. 남건이 군사에 관한 일을 승려 신성(信誠)에게 맡겼는데, 신성이 소장(小將) 오사(烏沙)와 요묘(饒苗) 등과 비밀리에 이적에게 사람을 보내 대응하기를 청하였다. 닷새가 지난 후 신성이 성문을 여니 이적이 병력을 풀어놓아 성에 오르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성에 불을 질렀다. 남건은 스스로를 찔렀으나 죽지 못하였다. 왕과 남건 등을 붙잡았다.(王臧遣泉男産, 帥首領九十八人, 持白幡, 詣勦降, 勦以禮接之. 泉男建猶閉門拒守, 頻遣兵出戰, 皆敗. 男建以軍事委浮屠校勘 信誠, 信誠與小將烏沙 饒苗等, 密遣人詣勦, 請爲內應. 後五日, 信誠開門, 勦縱校勘 兵登城, 鼓校勘 噪焚城. 男建目刺不死. 執王及男建等.)¹⁶⁾

D-①은 고구려 패망의 최후 순간의 모습이다. 평양성을 공격한 이적의 군대에 보장왕이 남산을 보내어 항복하는 모습과 이후 최후까지 항전하던 남건과 보장왕을 사로잡음으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부분이다.

14)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25년.

15) 정원주, 2014, 309쪽.

16)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27년.

E-① 함형(咸亨) 원년 경오년(670) 여름 4월에 이르러 검모잠(劍牟岑)이 국가를 부흥하려고 하여 당(唐)을 배반하고 왕의 외손 안순(安舜)을 세워 임금을 삼았다. 당 고종이 대장군 고간을 보내 동주도(東州道) 행군총관으로 삼고 병력을 내어 그들을 토벌하게 하니, 안순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至咸亨元年庚午歲夏四月, 劍牟岑欲興復國家, 叛唐立王外孫安舜 羅紀作勝.爲主. 唐 高宗遣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校勘管, 發兵討之, 安舜殺劍牟岑, 奔新羅.)¹⁷⁾

E-② [당 고종]개요(開耀) 원년(681)에 [왕을]불러 공주(邳州)로 돌아오게 하였다.(開耀 元年, 召還 邳州.)¹⁸⁾

E-①은 고구려 멸망 후 670년에 검모잠과 안순이 부흥운동을 전개한 내용이다. 이때 안순¹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나게 되어 부흥운동이 성공하지 못하였다. E-②는 요동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677년에 파견되어 온 보장왕이 부흥운동을 꾀한다고 하여 당이 681년에 사천성 공주지역으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고구려 부흥운동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 보장왕 시대의 사실을 『삼국사기』와 역사학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확인하였다. 이 부분을 군사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이론을 제시한다.

2. 이론적 근거

보장왕 당시의 고구려 위기관리를 분석하기 위해 위기관리와 간접전략 이론, 국력요소의 군사교리 반영을 확인한다.

1) 국가위기관리 지침

위기관리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준서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²⁰⁾이다. 이 문서는 국가안보실에서 발간하며 국가위기관리의 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분하고 있다. 각 단계별 내용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장왕 시대의 고구려 위기관리를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 4단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대사의 한 부분인 보장왕 시대의 위기관리를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17)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당 함형 원년.

18)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당 개요 원년.

19) 안순은 안승으로도 불리며,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의 아들이다. 검모잠과 안승의 갈등원인은 ‘고구려 부흥운동의 거점을 옮기는 문제’로 연구한 결과가 있다.(정원주, 2019, 62쪽)

20) 대통령훈령 제38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2018.9.4.)

[표 1] 위기관리 단계별 개념(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19~24쪽 정리)

구분	개념	활동
1단계 예방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제도 개선 정책적·기술적 대안 강구, 취약점의 보완 관리
2단계 대비	위기 상황 하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위기대응책의 수립 및 점검, 자원의 확보·관리, 교육과 연습·훈련, 위기징후 감시
3단계 대응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은 물론 위기가 확대 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초기 대응조직 및 비상대책기구의 가동, 응급대응 및 공조체제 유지
4단계 복구	위기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원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복구자원의 투입과 원상회복, 위기관리 활동의 평가, 개선책 강구

또한 위기관리에 대한 여러 이론 중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comprehensive crisis management)은 위기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순환과정으로 분석한다. 페택 교수²¹⁾의 이 이론은 위기 또는 재난을 관리하는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 기본지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의 안보상황은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과 포괄안보 관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각종 요소를 국가방위요소로서 대응해야 한다’²²⁾고 강조하는 추세이다.

2) 간접전략

간접전략(Indirect strategy)은 ‘군사적 승리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성과를 획득하고자 모색하는 것이다.’²³⁾라고 정의한다.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 즉 외교, 정치, 경제적 방법 등으로 목적을 실현한다. 간접전략(Indirect strategy)은 직접전략(Direct strategy)의 상대적 개념이다. 직접전략은 군사적 목적을 군사력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즉 군사력을 정면공격과 간접적으로 접근(Indirect Approach)하는 방법이 있다.

양드레 보프르는 그의 저서 『전략론』에서 간접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으로 외부책략(external manoeuvre), 내부책략(internal manoeuvre), 침식방법(erosion method), 단편책략(piecemeal manoeuvre)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외부책략은 ‘어떤 특정 작전의 성공 가능성은 범세계적인 국면에서 본 행동의 성공 여부

21) William J. Petak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교수는 1985년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Vol.45. Special Issue’에서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Administration” 제목의 기고를 통해 위기(재난)의 4단계 관리를 제시했다.

22) 김태진, 2023, 15쪽.

23) 양드레 보프르, 1975, 139쪽.

에 따라 결정된다.’²⁴⁾고 정의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투쟁의 초점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외부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²⁵⁾고 주장했다. 고구려 패망의 원인도 나당연합군과의 전쟁 관련된 측면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영향을 주었다는 측면이 있다.

내부책략은 ‘어떤 특정한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지리적 지역에서 사용될 책략을 안출하는 일이다.’²⁶⁾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방법에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 실질적인 무력, 정신력, 시간 등이며 이들 요소들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 여기에서 가용한 실질적인 무력이 열세할 경우에는 강력한 정신력이 요구되며 이 경우 작전은 불가피하게 지구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구려는 당나라에 비교하여 군사적 열세에 있었다. 때문에 고구려는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는 70년 전쟁을 통해 국가존망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내부책략의 지구전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침식방법은 ‘자기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에 대하여 극히 한정된 자원만을 사용하여 적으로 하여금 지극히 냉혹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²⁷⁾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물질적 국면과 심리적 국면이 공존한다. 물질적 국면은 군사력의 영역으로서 ‘게릴라’ 전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모택동의 전술을 소개하고 있다. 심리적 국면은 ‘침식(浸蝕)의 과정을 통하여 적으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 있고 이 경우에서도 성취된 결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심리적 활동은 필수적인 것이다.’²⁸⁾라고 소개하였다. 고구려가 패망해 가는 과정에서 나당은 심리적 국면으로 간자(間者)²⁹⁾를 운용하여 침식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고구려의 내분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나라가 고구려보다는 강력한 나라였다고 볼 수 있으나, 수나라는 물론 당나라도 고구려와의 패권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간접전략을 구사할 목적이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연개소문 아들들간의 갈등을 유발한 ‘어떤 사람’은 신라 또는 당나라의 간접전략에 따른 침식방법을 적용한 간자로 볼 수 있다.

3) 국력요소

국력요소(DIME)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군사기본교리로 2022년에 반영되었다.³⁰⁾

24) 앙드레 보프르, 1975, 141쪽.

25) 앙드레 보프르, 1975, 141쪽.

26) 앙드레 보프르, 1975, 145쪽.

27) 앙드레 보프르, 1975, 146쪽.

28) 앙드레 보프르, 1975, 149쪽.

29) 간자(間者)는 첩자(諜者), 간첩(間諜)과 동일한 말이며 본 논문에서는 간자(間者)로 사용한다.

30) 합동참모본부, 2022, 1-12쪽.

‘외교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군사작전에 대한 외국의 지지 및 지원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다. 외교를 통해 우방국들과 동맹 또는 연합을 결성하여 강력한 군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쟁 억제에 위해서는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외교가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가 주요수단이 되므로, 외교와 군사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³¹⁾고 제시하고 있다. 손자병법에서도 군사력으로 타격하는 것보다 외교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³²⁾ 따라서 고구려가 국가안보를 위해 국력요소인 외교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한다.

‘정보는 외교·군사·경제력 발휘에 필요한 국가안보의 기반이 되는 요소이다. 정보는 외교·군사·경제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식·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현대전은 인간의 인식·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며, 이를 위해 정보작전, 전략적 소통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파한다.’³³⁾고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가 국력의 수단으로서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고구려가 국가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정보(정치영역을 포함)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였는지, 정보를 근거로 외교와 군사, 경제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군사는 국가안보를 위한 직접적인 요소이다. 평시에는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적의 위협을 감소하거나 위협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하면 위협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국가 간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한다.’³⁴⁾고 제시하고 있다. 군사는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고구려가 군사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였는지, 나당연합군과의 전쟁 시 운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한다.

‘경제는 국가안보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요소이다. 경제를 통해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기초로 첨단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며, 가용한 예산을 활용하여 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시에 획득 및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이익 제공 또는 경제 봉쇄 등을 통해 적의 위협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와 경제협력을 통해 국가안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³⁵⁾고 제시하고 있다. 고구려는 한반도의 북부와 만주지역의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국가였다. 고구려의 경제적 여건이 국가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31) 합동참모본부, 2022, 1-13쪽.

32) 손자(김광수 해석하고 씀), 2012, 92쪽.(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33) 합동참모본부, 2022, 1-13쪽.

34) 합동참모본부, 2022, 1-13쪽.

35) 합동참모본부, 2022, 1-14쪽.

Ⅲ. 보장왕 시대의 위기관리 분석

1. 보장왕 시대의 위기관리 단계

고구려가 왜 패망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통치시대와 부흥운동 기간을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³⁶⁾ 연개소문의 정변과 이에 따른 보장왕의 옹립, 이후 당과의 외교와 전쟁, 고구려 내부의 정치적 분열,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한 패망에 이르는 과정을 위기관리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한 구분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군사학 이론들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패망을 방지하기 위한 교훈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표 2] 보장왕 시대 위기관리 단계

구분	기간	판단기준	비고
예방	642년~665년(23년)	연개소문 막리지로 실권 행사	연개소문
대비	665년~666년7월(1년)	남생 막리지, 형제간 갈등	남생
대응	666년8월~668년9월(2년1개월)	남건 막리지로 나당연합군과 전쟁	남건, 남산
복구	1 단계 668년9월~673년(5년)	고구려 부흥군 부흥 전쟁 (나여 연합군이 석문전투에서 당군에 패배 시까지 판단했을 경우)	안승, 검모잠
	2 단계 673년~681(8년) *677년2월~681년(4년)	보장왕의 부흥운동 (673-681년까지는 자료상 확인 제한) *보장왕이 요동지역에 도착하여 부흥운동 도모하다가 공주(邳州)지역으로 유배전까지	보장왕

위 [표 2]에서처럼 고구려 위기관리 예방단계는 642년 보장왕의 즉위로부터 막리지인 연개소문이 실권을 행사하던 665년까지 23년간이다. 이때 고구려는 주변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상황에 따라 외교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대비단계는 665년 연개소문 사망 이후 장남 남생이 막리지가로서 역할을 하던 666년 7월까지 1년간이다. 남생은 고구려 내부적 안정과 대당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전국 순행을 나섰지만 동생들과의 불신 속에 국내성으로 도피하게 된다.

대응단계는 666년 8월부터 668년 9월까지 2년 1개월간이다. 이때는 차남 남건이 막리지가로서 나당연합군과 전쟁을 하던 기간이다. 이때의 전쟁결과 보장왕이 항복함으로써 고구려는 멸망하였다.

36) 이문기, 2008, 70쪽.(여기에서 이문기는 보장왕 시대를 ‘멸망기’로 제시했다. 이 멸망기를 위기관리 단계로 구분 하였다.)

복구단계는 2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복구 1단계는 668년 9월부터 673년까지 5년 동안이다. 이 기간에는 안승, 검모잡 등 고구려 부흥군에 의한 부흥전쟁이 진행되었다. 고구려 부흥군과 신라 연합군이 당나라 군대와 의 석문전투에서 패배할 때까지의 기간이다.³⁷⁾ 복구 2단계는 673년에서 681년까지 8년 동안이다. 이 기간은 보장왕이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의 수도지역에 머물다가 요동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당에 의해 677년 파견되어 부흥운동을 진행했던 시기이다. 비록 부흥운동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사천성 공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지만 보장왕에 의한 부흥운동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673년에서 677년 2월까지 보장왕이 요동지역으로 파견되어 오기전까지의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제한된다.

2. 보장왕 시대의 위기단계별 나당의 간접전략과 고구려의 국력요소

위기관리 단계에 따라 각 단계별 나당의 간접전략은 무엇이었으며, 고구려의 국력요소는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와 관련되어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보장왕 시대 위기단계별 나당의 간접전략과 고구려의 국력요소³⁸⁾

구분	나당의 간접전략(IS)	고구려의 국력요소			
		외교(D)	정보(I)	군사(M)	경제(E)
예방 (642~6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1 당 태종이 진대덕을 고구려에 사절로 보내 정세파악 *고구려 상음마다 관리들에게 비단을 주어 고구려의 세세한 정보를 수집(보장왕 집권전 상황) *644.7 당 장엄 고구려 도착 *연개소문 만나 협력하다 수감됨 *644.9 연개소문 당에 백금과 50명의 숙위 요청(당 내부 정세 파악, 전쟁관련 기밀입수 목적) *645.8 당군이 막리지 철자 고죽리(高竹離)를 포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632-640 8년간 고구려와 당나라의 외교는 없었음(기록상) *642 신라 김춘추와 협상 * 신라와 동맹 미실사가 고구려 패망의 주요한 원인 *643 당에 도교 요청 * 당과 관계 개선 목적 *659 보장왕, 사신보내 당태종 사망 조문 * 조문외교 통해 관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2 연개소문 집권 *643 연개소문 도교를 중시하면서 불교도의 반감을 사게됨 *644 연개소문 대막리지 됨 *650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백성들 기근 연개소문 통치에 반발하는 집단 등장(연개소문 사망 후 갈등으로 표출) *665 연개소문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4 신라공격, 2개성 획득 *644.7 당태종 고구려 정벌 공식 천명(선박건조, 군량증비) *644 고구려가 영주지역 선제 공격 *645. 3 당태종 이세민 10만으로 고구려 침략 *6만(육로), 4만(해로) *전쟁전 연개소문이 긴장완화 도모(백금 공납, 관인의 숙위했으나 당의 거부로 무산) *661 고구려, 신라의 북한산성 공격 *662 2 연개소문 사수에서 당군 격퇴 *663 군사적 대응 부족 *백제부흥군 전쟁지원 미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0 초반 고구려 기아 발생(유박사리 자연재해로 흉작) *당의 견제정책(소모전략)으로 국가지원 소모
대비 (665~66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6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제10. 보장왕 * 아첨사람이 이르기를(阿諛) -나당의 간접전략 영향으로 형제간 갈등 조해 *666. 당의 태상부선 참석요구와 그로 인한 내부의 갈등 확대 *남생 VS 남건, 남산 서로 불신케한 원인중 왕권회복을 꾀하는 보장왕과 연정토가 연개소문 아들들의 갈등을 조해케 했다는 연구(정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5 보장왕, 태자 '복남'을 당나라의 태산 봉선 행사 참여시킴(보장왕이 당나라와 관계 개선 도모했다는 근거로 해석 가능) *666 연남생 '불덕'을 당고종에게 보냈으나 만나지 못함 *666.4 연유가 청병사로 당 고종 만남 *666. 당고종 '최현'을 국내성으로 보냄 *666.6 연남생이 아들 연현성을 당에보내 파병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5 연남생 집권 * 연남생이 지방을 순시한 것은 지방세력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연개소문-남생으로 이어지는 연씨 정권의 세력구축은 중앙정계에 한정됨) *666초 고구려 내분 발생 *남건이 남생의 아들 '현중'을 죽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6 연남생의 대당창행(2회) * 당, 최현 파견 *666.6 연현성 '향도'가 되어 당군과 함께 고구려로 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의 견제정책(소모전략)으로 국가지원 소모

37) 이상훈, 2019, 559쪽.(이상훈은 이 논문에서 고구려 부흥군의 부흥운동이 이때 실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평가했다.)

38) 표에 제시된 내용들을 『삼국사기』와 역사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p>대응 (666.8월~ 668.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6.12 연정토 12개 성과 함께 신라에 투항(연개소문 집안의 내부 분열이 고구려 국가 멸망초래, 연정토가 남생 형제를 반목하도록 했다는 측면도 간접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667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7, 문무왕 11년」(담실인귀서(신라와 당이 고구려 원정에 나서다)에서 667년 ‘신라 병마가 홀로 쳐들어가는는 안 되었으므로 먼저 간재(間者)를 세 번이나 보내고 배를 계속해서 띄워 대군의 동장을 살펴 보게 하였습니다(新羅兵馬不可獨入, 先遣細作三度, 船相次發遣, 覘候大軍)’ *고구려와의 전쟁간 간사 운용사례 확인 가능 •668 승려 신성 *연남건 진영의 군사를 맡아보던 승려로서 연남생과 내통하여 당군을 맞아들이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남건은 당과 외교적 문제해결 노력 보이지 않음 •7세기 후반 고구려가 사절단 보낸(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암 궁전 벽화) *고구려 조정의 동맹 노력으로 해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 군사 동향 수집 부족 •666 연개소문 동생 연정토 12개 성과 함께 신라에 투항, 고구려 정치세력의 갈등으로 인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6.8 보장왕이 연남건 대마리지 임명 •666.12 당고종, 이적에게 고구려 공격 명령 •667.2 이적 신성 도착 •667.7 당군의 신라군 지원요청 *문무왕 현성주에서 망월령로 따라 복진 개사후 장새도착, 당군철수 소식에 화군함 •667.9 신성 함락 * ‘사부구’ 가 성주결박, 성문 열어 항복 •668.2 부여성 당군에 함락(설인귀) •668.6.29 신라 선발대 김인문 이적 만나 대성산으로 진군 •668.9.21 신라본대와 당군 ‘사수’ 에서 합류, 시수전투와 평양성 전투 •668.9 당군, 현달간 평양성 포위, 보장왕이 연남산을 시켜 이적에게 항복 *연남건은 성문 닫고 저항, 연남건 측의 승려 신성(信誡)이 연남생과 내통하여 당군 맞아들이므로 평양성 함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p>• 9.18일 보장왕 항복</p>					
<p>복구 (668.9월~ 673.윤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의 승려 범안, 검모잠에 의해 죽음 (당시 승려들은 첩보원 활동) •안승과 검모잠의 갈등(신라가 안승을 설득하여 부흥군의 본부를 평양성이 아닌 금마저(익산) 지역으로 옮기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0 안승, 신라에 소형 다식을 보내 도움 요청 •671-672 왜에 사신 보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0.6 검모잠 서해 ‘사야도’ 에서 안승을 만남 •670.6 안승 금마저(익산)에서 ‘고구려국’ 재건, 신라는 고구려 국왕으로 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0.3 고연무, 설오유 장군이 당나라의 고간(高侃)과 이근행과 전투(-673년) *나당전쟁의 시작 전투 •670.3 오골성 전투 •671.6 석성 전투 •671.7 안시성 함락 •672.7 당나라 장군 고간이 이끄는 당병이 평양에 8영을 세움 •672. 8 석문전투에서 패함 (신라·고구려 연합군) •673.윤5월, 당군이 호로해(임진강)에서 고구려 부흥세력 격파 (고구려부흥운동 막을 내림) 	
<p>(673.윤6월~681)</p> <p>*677년2월~68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왕의 부흥운동을 당에 고발한 인원들 존재 -남생 -남생과 부여음 -고구수 -천현성 •고구려 멸망원인(배근홍) - 고구려의 내분 - 천재로 인한 백성 피해 - 나당의 소요책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7 보장왕이 요동주도독 조신왕으로 봉해짐, 고구려 부흥도모 발각되어 공주(匡州)로 소환, 다음해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4.9 신라가 안승을 보덕왕으로 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6.2 당은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요동군 고성으로 옮기고 677년 신성으로 이치 	

위의 내용들은 1차 사료인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위기단계별로 고구려의 적국이었던 나당의 간접전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고구려의 국력요소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위기관리 단계는 고구려의 멸망을 위기관리의 대응으로 설정하고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3. 예방단계의 위기관리(연개소문 집권기)

고구려가 멸망한 사실을 기준으로 예방단계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통해 영류왕을 제거하고 보장왕을 옹립한 뒤 막리지로 실권을 행사하던 기간이다. 이 기간 중 고구려는 당과의 전쟁,

신라와의 외교적 협상 등을 진행하였다.

1) 나당의 간접전략

고구려와 패권 다툼을 했던 당나라는 641년 당 태종이 진대덕을 고구려에 사절로 보내 정세를 파악하게 했다. 이때 진대덕은 고구려 성읍마다 관리들에게 비단을 주어 고구려의 세세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진대덕이 고구려의 허실을 엿보았으나, ‘고구려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覘國虛實, 吾人不知.)’³⁹⁾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기 1년 전으로서 당나라는 고구려 공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44년 7월에는 당나라의 승려 장엄이 고구려에 도착하여 연개소문을 만나 당 황제의 유지를 전하며 협박하였으나, ‘연개소문이 조서를 받지 않고 그를 굴방에 수감’⁴⁰⁾하였다. 644년 9월에는 ‘연개소문이 당에 백금과 50명의 숙위를 요청’⁴¹⁾하였는데 이것은 당 내부의 정세를 파악하고 전쟁관련 기밀을 입수할 목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645년 8월에는 당군이 막리지의 첩자 고죽리(高竹離)를 포획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보아 예방기간의 간접전략은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으로 인한 활발한 첩보수집, 간첩활동 등으로 상대국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려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구려의 국력요소

(1) 외교

외교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군사작전에 대한 외국의 지지 및 지원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앞에서 알아보았다. 고구려의 외교분야의 상황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자.

642년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에 도착하여 군사요청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사실’⁴²⁾이 있다. 이때 연개소문은 신라가 점령한 고구려의 옛 영토를 우선 반환할 것을 요구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라와의 원활한 외교적 협상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연개소문이 신라의 동맹요청을 물리치고 결국 나당동맹이 이루어지게 한 것을 고구려 국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 외교상의 실패’⁴³⁾라 평가한 내용을 보았을 때 김춘추가 고구려에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연

39)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류왕 24년.

40) 『삼국사기』 권49, 열전9, 개소문.

41)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3년.

42)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원년.

43) 박경철, 2007, 182쪽.

개소문이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면 한반도의 고대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나라와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었던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후방의 적이 될 수 있는 신라와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개소문은 643년에 당에 도교를 요청’ 44)하였다. 이것은 당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보장왕은 659년에 당태종의 사망에 따라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였다. 665년에는 ‘보장왕이 태자 ‘복남’을 당나라의 태산 봉선 행사 참여’ 45)시켰는데 이는 보장왕이 당나라와 관계개선을 도모했다는 근거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2) 정보

정보는 외교·군사·경제력 발휘에 필요한 국가안보의 기반이 되는 요소이다. 고구려의 정보분야의 상황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자. 이 정보분야에는 국내정치적 상황도 연계된다. 국내정치상황이 적과 인접국가의 정보수집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642년에 ‘연개소문이 영류왕과 대신들을 죽이고 보장왕을 옹립하며 실질적 권력을 잡게 되었다.’ 46) 연개소문은 643년에 도교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면서 불교도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승려들은 백제나 신라로 망명을 하였다.

644년에 연개소문이 대막리지가 되었다. 연개소문은 당과의 전쟁을 계기로 군사·외교·내정 등 국정 전반을 단독으로 결정해 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변 직후 당에 도교 수용을 요청하거나 김춘추와 교섭 할 때 보장왕을 내세움으로써 명목상으로는 국왕의 위상을 인정하였던 사례와 뚜렷이 대비된다’ 47)고 보는 주장을 고려 시 집권 초기에 비해 권력의 안정성을 더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650년 ‘자연재해가 원인이 되어 백성들은 기근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48) 이에 따라 연개소문의 통치에 반발하는 집단이 등장하게 되었고, 연개소문 사망 후에 갈등으로 표출되게 되었다.

(3) 군사

군사는 국가안보를 위한 직접적인 요소이다. 평시에는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적의 위협을 감소하거나 위협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하면 위협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앞에서 제시하였다. 고구려의 예방단계 동안의 군사적 활동을 확인해보자.

44)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2년.

45)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25년.

46)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원년.

47) 방용철, 2015, 175쪽.

48)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3년.

644년에 고구려는 신라를 공격하여 북부 변경의 2개성을 획득하였다. 644년 7월에는 ‘당 태종이 고구려 정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선박건조와 군량을 준비하게 하였다.’⁴⁹⁾ 이러한 가운데 고구려가 요동의 영주를 선제 기습공격 하였다. 645년 3월 ‘당태종은 10만의 군사로 고구려를 침략하였다.’⁵⁰⁾ 이때 6만은 육로를 통해, 4만은 해로를 통해 이동하였다. 이 전쟁 전에 연개소문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백금을 공납하고, 관인의 숙위를 도모했으나 당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661년 ‘고구려는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⁵¹⁾ 662년 2월 연개소문이 사수에서 당군을 격퇴하였다. 663년 백제부흥군이 고구려에 전쟁지원을 요청하였는데 고구려의 군사적 대응이 부족하였다.

군사 분야와 관련된 역사학적 연구에서 고구려가 당과의 전쟁을 지속하게 된 배경이 당의 전쟁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연구가 있다.⁵²⁾ 이 연구는 ‘연개소문 집권기는 물론이고 영류왕이 대당 우호 정책을 시행한 때에도 당의 고구려 경략이라는 목표는 결코 바뀌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북아의 패권을 두고 당과 고구려는 전쟁을 피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이러한 패권의식에 대해서 ‘중국과 유목문화권을 자기의 천하와 분별하면서, 동북아에서의 패권 장악을 도모하려 했다’⁵³⁾는 주장도 있다. 즉 고구려와 당의 전쟁은 애당초 타협이 불가능한 제로 썸(zero-sum)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고구려는 국초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군사적 국세 팽창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독자적 생존권과 패권의 보존 및 그 확산을 담보하는 나름대로의 대륙정책을 관철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당은 동아시아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 지배질서로 재편, 자국의 안보를 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세계정책을 강행하고자 했던 것이다.’⁵⁴⁾고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대륙정책과 당의 세계정책의 충돌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고구려와 당과의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경제

경제는 국가안보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경제분야가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자.

650년 초반에 고구려에 기아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의 원인으로서는 우박과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이었다. 고대사회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경제체제상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은 고구려 국민들의 삶과 경제적 여건에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9)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3년.

50)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4년.

51)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20년.

52) 방용철, 2015, 176쪽.

53) 박경철, 2007, 145쪽.

54) 박경철, 2007, 148쪽.

또한, 이 기간은 고구려와 당과의 패권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의 견제정책 즉 소모전략으로 국가자원이 지속적으로 소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는 중국 대제국과의 장기전쟁으로 인한 물적·인적 손실이 있었고, 연개소문의 독재와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대비단계의 위기관리(연남생 집권기)

이 단계는 연개소문 사후 장남인 남생이 막리지로서 역할을 하던 기간이다. 남생이 지방 순행을 하는 동안 ‘어떤 사람’으로 지칭되는 무리에 의해 형제들 간에 분쟁이 진행되어 남생이 국내성으로 피신하게 된다.

1) 나당의 간접전략

이 기간 중 나당의 간접전략에 따른 내부분열이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C-①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두 동생에게 말하기를(或謂二弟曰)’ ‘또 어떤 사람이 남생에게 알리기를(又有告男生者曰)’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존 연구는 ‘형제간을 이간시킨 세력은 연개소문 가문의 장기 집권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세력이었다’⁵⁵⁾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들은 대당노선에서 강경론자인 남건은 물론 온건론자인 남생의 편도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형제간 갈등을 초래하여 정국을 주도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력의 배후에는 나당의 간접전략이 작동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662년 평양을 직접공략한 전략의 실패 후 고구려 분열을 유도한 공작의 결과가 연개소문 사후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구려 내분의 배경에 당의 공작이 있었음’⁵⁶⁾을 제시하는 연구자도 있다.

한편, 666년 태산봉선에 보장왕의 아들이 참석한 것은 남생과 보장왕의 연합전선이 구축되어 대당 화해노선을 추구하고자 했음을 뜻하는 바, 이에 대해 남건은 대당 강경노선을 견지하고자 함으로써 고구려 패망과 직결되는 내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일본서기』에서는 ‘어떤 사람’을 측근의 사대부 세력 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문객과 같은 사적인 측근 세력일 수도 있고 정치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인물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들이 지지하는 인물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⁵⁷⁾고 주장하기도 했다.

55) 김영하, 2000, 50쪽.

56) 이문기, 2008, 92쪽.

57) 정원주, 2014, 310쪽.

이와 같이 연개소문 사후 연남생이 막리지로 집권하던 기간에 내부분열 양상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려던 나당의 간접전략이 작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고구려의 국력요소

(1) 외교

이 기간 동안 고구려의 외교는 665년 보장왕이 태자 복남을 당나라의 태산 제사에 참가하게 하여 관계개선을 도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남생은 666년에 ‘불덕’을 당고종에게 보내어 외교적 관계개선을 도모했으나 불덕은 당고종을 만나지 못하였다. 연남생이 동생들간의 갈등속에 국내성으로 피신한 666년 4월에는 염유가 청병사로 당 고종을 만나기도 하였다. 당고종은 이에 따라 ‘최현’을 국내성으로 보내어 상황을 파악하게 하였다. 666년 6월에는 연남생이 아들 연현성을 당에 보내어 파병을 요청하였다.

외교 분야와 관련된 역사적 연구는 고구려가 당과의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전쟁이 아닌 외교적 수단을 통해 국가존립을 도모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정보

665년에 연개소문이 사망 후 장남인 연남생이 집권하였다. 이 기간 연개소문의 뒤를 이어 막리지가 된 남생이 지방 순행을 가면서 나랏일을 잠시 아우들인 남건과 남산에게 맡겼으나 이들의 배신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되자 당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사건의 발단이 된 남생의 순행 목적은 ‘지방의 반대세력 회유와 자신의 새로운 기반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⁸⁾고 제시하고 있다.

고구려의 내부적 갈등이 표출된 사건 중 하나가 남건이 남생의 아들인 현충을 죽인 사건이다. 남생이 순행하는 기간 중 주위 ‘어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어 몰래 평양성을 염탐하게 한 사람이 붙잡히게 되고 왕명에도 불구하고 연남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남건 등은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면서 남생의 아들인 현충을 죽이고 그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던 것이다.’⁵⁹⁾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상황의 혼란은 적과 인접국가의 정보 수집에 영향을 주어 정세파악을 부실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된다. 이것이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대비를 취약하게 하

58) 정원주, 2014, 309쪽.

59) 『삼국사기』 권49, 열전 제9 연남생(南建殺基子獻忠)

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연씨 집안 내의 권력 싸움은 고구려를 내전으로 혼란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사분오열 시키게 됨으로써 당군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심적인 면에서도 전력면에서도 고구려를 열악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더욱이 남생의 당나라로 투항이나 연정토의 신라로의 투항은 일 개인의 투항이 아니라 그의 세력권의 투항이었다. 고구려 집권 세력 내부의 갈등은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생형제의 갈등의 배후에는 귀족세력 간의 갈등이 숨어 있었으며, 이러한 지배세력의 분열과 정쟁은 ‘대막리지 단계’ 부터 이완되어 가고 있었던 고구려 사회의 내부적 통합력을 더욱 약화시켜, ‘남생형제 집권기 4년을 거치면서 고구려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⁶⁰⁾라고 보고 있다.

(3) 군사

군사측면에서 665년 연남생은 국내성에서 대피하면서 대당 청병을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때 당은 최현을 파견하여 실상을 파악하게 하였다. 666년 6월에는 연현성이 ‘향도’가 되어 당군과 함께 고구려로 출발하였다.

고구려의 대당 전쟁전 치명적인 균열은 666년 정쟁으로 실각한 남생이 당으로 도움을 요청한 전쟁 지도부의 분열이었다. 연개소문 사후 일어난 그 자식들 간의 권력 다툼은 절대적 권력자의 죽음이 몰고 올 사후 불안정성의 단적인 예가 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생전 절대자 권력의 안정성에 비례하여 증폭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경제

이 기간에도 경제적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의 지속적인 견제정책으로 국가자원은 소모되고 있었고, 연년 흉작으로 인한 기근이 계속 되었다. 특히, 국가 지배세력의 정쟁은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사되지 못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5. 대응단계의 위기관리(연남건 집권기)

이 단계는 연개소문의 차남인 남건이 막리지로서 역할을 하던 기간이다.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 국면인 나당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보장왕이 항복함으로써 고구려는 멸망하게 된다.

60) 이문기, 2008, 86쪽.

1) 나당의 간접전략

고구려 멸망과정의 결정적 국면인 668년 9월 평양성 함락과정에도 당나라의 간접전략이 적용되었다. 당군이 한달여간 평양성을 포위하자 보장왕은 연남산을 시켜 당나라 장수 이적에게 항복하였다. 하지만 연남군은 성문을 닫고 군사를 내어 저항하였다. 그런 가운데 연남군 진영의 군사를 맡아보던 승려 신성이 연남생과 내통하여 당군을 맞아들이면서 평양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이때 승려 신성이 취한 행동은 당으로부터 간접전략을 통해 침식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동안 고구려의 멸망은 연개소문의 정변과 장기집권으로 인한 고구려 내부의 갈등으로 보는 측면이 강했다. 이것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고구려의 멸망원인으로 내분론을 강조한 이래 그 내분을 연개소문의 독재정치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강화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멸망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당이 제국질서를 완성하기 위해 고구려의 내분을 획책했다고 볼 수도 있다. ‘내분의 직접 원인은 당의 공작이었음을 밝혀 외침론의 입장을 확인한 연구’⁶¹⁾도 있다. 고구려가 멸망한 것이 단순히 내분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그 내분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당나라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666년 12월 연정토가 신라에 투항하였다는 것은 신라가 고구려에 시행한 간접전략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연개소문 집안의 내부 분열이 고구려 국가 멸망을 초래하게 하였고, 연정토가 남생 형제들을 반목하도록 했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해석이다. 연정토는 남생 형제들을 반목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정국 장악은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남생이 당으로 투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666년 12월에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하였다.’⁶²⁾ 이때의 12성은 신라지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대개 동해안 방향의 비열홀(함경남도 안변)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연정토가 신라로 투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연정토가 보장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으려 했다가 남건이 중앙과 지방의 군사권을 빠르게 장악하자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상황을 이렇게 몰고 온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자신의 세력권을 들어 신라로 투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⁶³⁾고 주장한 연구자도 있다.

또한, 『삼국사기』의 다음 기록은 신라가 간접전략의 일환으로 간자를 적극활용한 사례를 보여준다.

F-① “건봉(乾封) 2년(667)에 이르러서는 대총관 영국공(英國公)이 요동을 정벌한다는 말을 듣고서 (나는)한성주(漢城州)에 가서 군사를 보내 국경 가까이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신라 병마가 홀로 쳐들어가는는 안 되었으므로 먼저 간자(間者)를 세 번이나 보내고 배를 계속해서 띄워 대

61) 김영하, 2000, 53쪽.

6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6년 12월조.

63) 정원주, 2014, 318쪽.

군의 동정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간자가 돌아와서 모두 ‘대군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우선 고구려의 칠중성(七重城)을 쳐서 길을 뚫고 대군이 이르기를 기다리고자 하였습니다.(至乾封二年, 聞大總管英國公征遼, 某往漢城州, 遣兵集於界首, 新羅兵馬不可獨入, 先遣細作三度, 船相次發遣, 覘候大軍, 細作迴來並云, ‘大軍未到平壤.’且打高麗七重城, 開通道路, 佇待大軍來至.)⁶⁴⁾

위의 기록처럼 신라는 나당연합 공격전에 간첩인 세작(細作)을 세 번이나 보내어 정세를 살피게 했다. 이러한 과정은 군사작전 이전에 진행되는 첩보수집이고 간접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고구려의 국력요소

(1) 외교

외교적 측면에서 남건이 막리지로 집권하여 통치하던 이 기간에 당나라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교적 방법으로 접근한 내용은 확인하기가 제한된다. 전쟁을 결심한 당나라가 외교적으로 상대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편, 고구려가 7세기 후반에 사마르칸트에 사절단 보내어 외교적 우호친선과 동맹을 도모한 사실은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압 궁전 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정보

정보측면에서 연남생이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뒤, 연남건은 ‘666년 8월 보장왕에 의해 정식으로 막리지에 임명되어 내외병마사를 겸하였다.’⁶⁵⁾ 이때부터 고구려의 실제적 권력행사는 연남건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665년 연개소문 사후 연씨 형제가 집권하였던 3년간 고구려 지배층 사이에는 두 번에 걸친 결정적인 내분을 겪었다. 먼저 연남생과 남건·남산 사이가 틀어져 남생이 당으로 투항함으로써 고구려를 멸망시킬 결정적인 기회를 주었다. 다음으로 연남건과 보장왕·연남산은 항전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투항할 것인지를 방향을 두고 나뉘었다. 이러한 두 번에 걸친 지배층 사이의 내분은 고구려의 운명을 더욱 재촉하였다.

국력요소 중 정보는 적과 주변국에 대한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안정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고구려 지도층의 내분은 이러한 정보활동을 위축하게 하여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취약하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6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65)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25년(秋八月 王以南建爲莫離支兼知内外兵馬事)

(3) 군사

군사측면에서 이 기간은 당과 온건한 관계를 유지하던 연남생이 실각한 이후 대당 강경노선을 지향한 연남건이 당과의 전쟁을 진행하였다.

666년 12월에 당고종은 이적에게 고구려 공격을 명령하였다. 이것은 신라가 4월 당나라에게 고구려를 공격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구려의 내분을 이용한 신라의 외교전략 결과로 볼 수도 있다. 667년 2월, 이적은 고구려의 신성에 도착하였다. 667년 7월에는 당군이 신라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①에서 제시한 것처럼 신라군은 문무왕이 한성주에서 망원령로 따라 북진을 개시하였고, 장새에 도착시 당군의 철수 소식에 회군하였다. 667년 9월에는 신성이 함락되었다. 이때 ‘사부구’가 성주를 결박하고 성문을 열어 주어 항복하게 되었다. 668년 2월에는 부여성이 설인귀의 당군에게 함락되었다. 668년 6월 29일에는 신라 선발대 김인문이 당나라 장수 이적을 만나 대성산으로 진군할 것을 명령받았다. 668년 9월 21일에는 신라본대와 당군이 ‘사수’에서 합류하여 사수전투와 평양성 전투가 진행되었다. 당군은 한달간 평양성을 포위하였고, 보장왕이 연남산을 시켜 이적에게 항복하게 하였다. 이때, 연남건은 성문을 닫고 저항하였고, 연남건측의 승려 신성이 연남생과 내통하여 당군을 맞아들임으로 평양성이 함락되었다.

고구려가 당과 신라와의 전쟁을 진행한 내용 중 신라와 사천원전에서 전투한 것을 백제가 황산벌에서 신라군을 막아선 것과 동일하다고 연구한 내용도 있다. 즉 668년 한성주에서 북진하는 신라 본대를 저지하고자 하는 고구려 지휘부의 입장이 황산벌에서 신라군을 막아선 계백과도 동일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신라군은 대성산 기슭의 당군과 합류하기 위해 진격로 상에 위치한 고구려 성들을 무시하고 통과할 태세였다. 이에 고구려 지휘부는 농성전으로 신라군의 북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진격로를 감안하여 방어에 유리한 지역을 선점해 저지선을 설정했다. ‘668년 고구려는 사천을 전면에 두고 후방의 넓은 평원에 군대를 포진시킨 사천원에서 신라군을 막아섰다.’⁶⁶⁾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황산벌 전투에 대해 ‘660년 계백이 황산의 험지에 의거해 3영을 설치하고 연산구조곡 기저부에서 신라군을 막아선 1차 전투와 신라군의 돌격으로 저지선이 돌파당한 뒤 황산벌에서 2차 전투로 진행되었다’⁶⁷⁾고 연구한 논문에서 황산벌 전투의 성격이 제시되었다.

(4) 경제

경제측면에서 이 기간 고구려는 598년 이래 70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친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피폐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668년 나당연합군의 공격

66) 김병곤, 2013, 141쪽.

67) 김태진, 2024, 130쪽.

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한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물이 허비되어 국력이 소진되었고, 군사력이 강해지는 당 및 신라와의 전쟁으로 고구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6. 복구단계의 위기관리(부흥군의 부흥운동, 보장왕의 부흥 도모)

이 단계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뒤 부흥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이다. 복구 1단계는 안승, 검모잠에 의해 진행된 군사적 부흥운동 기간이다. 복구 2단계는 보장왕이 677년 요동지역으로 돌아온 뒤 전개되는 부흥운동 기간이다.

1) 나당의 간접전략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분석하는 복구 1단계 기간에 검모잠이 당의 승려 법안을 죽인 사건이 있다. 당시의 승려들은 첩보원 활동을 했다고 연구되어 있다. 이로 보아 검모잠은 고구려 부흥군의 상황을 파악하여 당에 보고하는 승려 법안을 죽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승과 검모잠의 분열이 진행되었다. 이들의 분열은 ‘사찬(沙澮) 수미산(須彌山)을 보내어 안승(安勝)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⁶⁸⁾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신라가 ‘안승과 검모잠 중에서 안승에 힘을 실어 줌으로 인해 이들의 내부갈등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⁹⁾고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안승과 검모잠의 갈등을 ‘신라가 안승을 설득하여 부흥군의 본부를 평양성이 아닌 금마저(익산) 지역으로 옮기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다’⁷⁰⁾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신분제 사회인 당시의 상황을 고려 시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과 무장이었던 검모잠의 갈등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복구 2단계에는 보장왕의 부흥운동을 저지하고 이를 당에 알린 세력이 있다고 연구한 결과⁷¹⁾에 의하면 고구려 내부에 당의 간접전략 차원에서 운용된 첩자들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배근홍은 고구려의 멸망원인으로 고구려의 내분과 천재로 인한 백성의 피폐, 나당의 소요책략을 제시하였는데 나당의 소요책략이 간접전략인 것이다. 보장왕의 부흥운동을 당에 고발한 인원들은 남생, 남생과 부여융, 고구수, 천현성으로 연구한 결과도 있다.

68)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10년 7월.

69) 정원주, 2019, 62쪽.

70) 정원주, 2019, 62쪽.

71) 김강훈, 2013, 337쪽.

2) 고구려의 국력요소

(1) 외교

고구려는 비록 멸망하였으나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세력들이 추진한 외교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모잠 등은 670년 6월에 백성들을 거두어 모아 궁모성에서 패강 남쪽에 이르러 당 관인과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신라를 향해 가다가 서해 사야도에 이르러 고구려 대신 연정토의 아들 안승을 만나 한성 안으로 맞이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그리고 670년 소형다식 등을 신라에 보내 슬피 고하기를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는 것은 천하의 공의인데 오직 대국에게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왕이 도리를 잃어 멸망하였으나 지금 신 등이 나라의 귀족 안승을 맞아 임금으로 받들었습니다. 원하건대 번병이 되어 영원히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⁷²⁾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한성에 고구려국이 재건되면서 신라에 그 사실을 알리는 사신을 파견한 목적은 고구려 부흥운동에 신라의 협력과 도움을 원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671~672년에 걸쳐 왜에 사신을 보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검모잠이 670년 6월 안승을 만난 장소를 ‘서해의 사야도(史治島)’⁷³⁾라고 연구한 결과도 있다. 670년 6월경 금마저로 간 안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신라의 승인하에 그곳에서 고구려국을 재건하였다. ‘금마저에 도착한 안승집단은 신라의 승인하에 국가로서의 위상과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안승과 함께 한 무리들을 중심으로 고구려식의 관등체제를 정비하고 5부도 재편하였을 뿐 아니라 왜국으로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다.’⁷⁴⁾고 제시하고 있다.

(2) 정보

이번 연구에서 고구려의 부흥운동 기간을 나여 연합군의 석문전투 패배로 부흥전쟁이 종료되는 1단계와 보장왕이 부흥운동을 도모하다가 공주로 소환될 때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력요소 중 정보의 기능이 적과 인접국에 대한 정세를 파악하고 국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부분이라고 보았을 때 고구려가 패망한 뒤 복구단계의 정보 분야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비와 대응단계에서도 고구려는 정보 분야가 취약하여 나당의 간접전략에 노출되어 있었고, 연개소문 아들들 간의 갈등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7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10년 6월조.

73) 이상훈, 2023, 125쪽.

74) 정원주, 2019, 84쪽.

679년이 되면서 상황이 변화한다. 먼저 ‘679년 1월 29일 연남생이 사망한다. 이는 보장왕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약화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보장왕이 유민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⁷⁵⁾고 분석하고 있다.

[표 4] 보장왕의 요동 귀환 이후 요사요동 일대의 정세(출처 : 임금표, 2022, 229쪽)

시점	내용	비고
677년 2월	보장왕이 요동으로 귀환함.	부흥운동 잠복시기
677년 2월	당이 안동도호부를 신성으로 옮기고 남생을 안동도호부로 파견함.	
679년 1월	남생이 안동도호부에서 사망함.	
679년 10월	단우대도호부(單于大都護府)의 돌궐 아사덕온부(阿史德溫傅)와 봉직(奉職)의 2부가 반란을 일으키자 24주의 추장이 모두 따라 일어남. 당은 소사업 등을 보내 공격하였으나 패배함. 또한 돌궐이 정주(定州)를 침입하여 해와 거란을 선동하여 영주(營州)를 침략하게 하자 도독 주도무(周道務)가 호조시평 당휴경(唐休璟)을 파견하여 격파함.	부흥운동 도모시기
679년 11월	정양도행군대총관(定襄道行軍大總管) 배행검(裴行儉)과 영주도독 주도무가 병사 18만을 거느리고 서군검교풍주도독(西軍檢校豐州都督) 정무정(程務挺), 동군유주도독(東軍幽州都督) 이문간(李文暉)과 함께 총 30여 만의 병력으로 돌궐을 공격함.	
680년 3월	배행검(裴行儉)이 흑산(黑山)에서 돌궐을 공파하고 추장 봉직을 잡았으며, 여당들은 랑산(狼山)으로 도망감.	
680년 7월	돌궐의 잔여 부대가 운주를 포위하였는데 대주도독 두회철(竇懷悛), 우영군중랑장(右領軍中郎將) 정무정이 병사를 거느리고 격파함.	
681년 1월	돌궐이 原·慶 등 주를 공격함. 돌궐 아사나복염(阿史那伏念)이 스스로 가한(可汗)으로 자립하였으며, 아사덕 온부와 같이 병력을 모아 노략질함.	
681년 7월	배행검이 돌궐 여당을 평정함.	부흥운동 발각시기
681년 10월	아사나복염, 아사덕온부 등 54인을 수도 시장에서 참수함.	
681년	보장왕이 공주로 유배됨.	

보장왕이 요동으로 귀환한 시기부터 유배된 시점까지의 주요 사건을 표로 정리하면 위의 [표 4]와 같다. 이 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보장왕이 말갈과 연계하여 부흥운동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는 것이다.

고구려의 부흥운동 기간은 보장왕의 사망 때까지로 볼 수 있다. 보장왕은 일반적으로 나약하고 무력한 인물로 비추어 진다. 하지만 그는 677년 요동주도독 조선왕으로 봉해져 당의 여러 주에 흩어져 있던 고구려민들과 함께 요동으로 보내져 그 지역을 안무하게 되었다. 그는 요동에 이르자 말갈과 더불어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다 발각이 되어 681년 공주로 소환되었다가 그다음 해에 죽었다. 이것은 그가 멸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5) 김강훈, 2013, 316쪽.

(3) 군사

군사측면에서 670년 3월에 고구려의 고연무와 설오유 장군이 당나라의 고간, 이근행과 전투를 시작하여 673년까지 진행되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전투를 나당전쟁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즉 고구려의 장군들이 당나라 군대와 전투를 진행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신라의 지원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때 오골성 전투가 있었다. 671년 6월 석성 전투가 진행되었다. 671년 7월에는 안시성이 함락되었다. 672년 7월에는 당나라 장군 고간이 이끄는 당병이 평양에 8영을 세웠다. 672년 8월 석문전투에서 나여 연합군이 패하였다. 673년 윤5월, 당군이 호로하(임진강)에서 고구려 부흥세력을 격파하였다. 신라는 고구려 고지에서의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시기에 구백제 영역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이를 위한 선제 작업으로 신라는 669년 2월 자국에 투항했던 안승을 검모잠 세력과 연결시킴으로써 고구려 부흥운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⁷⁶⁾라고 보고 있다. 이렇듯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신라 입장에서는 전쟁 중, 적어도 백제 공략이 일단락되는 시점까지는 반드시 서북방면의 고구려 세력이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존재하게 유지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세력을 확대할수록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당의 기미주 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던 만큼, 그 반대급부로서 신라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을 것이다.’⁷⁷⁾라고 보기도 한다.

고구려 부흥군은 4년에 걸쳐 계속된 전쟁과 신라의 형식적인 지원으로 인해 패배를 거듭하게 되면서 차츰 남쪽으로 밀리게 되었다. 669년 검모잠의 거병과 한성의 고구려국 개전에서 시작된 고구려 고지에서의 유민항쟁은 673년까지 격렬한 저항을 거듭하다 실패하고 신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당군과의 전쟁은 신라군이 주도하게 되면서 나당 사이에 전쟁이 본격화 되었다. 이러한 전쟁과정 중 ‘670년 3월에 등장한 말갈은 당군 소속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골성 전투는 당군의 작전하에 말갈병이 동원되어 벌어진 전투라고 보아야 한다.’⁷⁸⁾는 주장을 근거로 보았을 때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요동지역에 거주하던 말갈에 영향력을 미쳐 전쟁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골성 전투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의 성격이 있지만 신라의 나당전쟁의 시작이라고 봐야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고구려 유민들의 부흥운동이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송화강 유역(부여성)·두만강 유역(책성)·요동 일대(안시성)·황해도 일대(한성) 등 고구려고지의 주요 거점들을 망라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만연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⁷⁹⁾고 제시된 바도 있다. 이와 관련 ‘안시성은 부흥운동의 군사적 거점이었을 뿐 아니라 유민사회를 심리적·

76) 정원주, 2019, 49쪽.

77) 권창혁, 2021, 194쪽.

78) 이상훈, 2019, 558쪽.

79) 권창혁, 2021, 177쪽.

정신적으로 뒷받침하는 공간이었던 것' 80)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부흥운동이 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서로 연계되지 않아 부흥운동의 한계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2단계 기간에는 676년 2월, 당은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요동군 고성으로 옮기고 677년 신성으로 이치하였다. '11개에 이르는 미항성의 존재는 고구려 멸망 후 대규모의 대당항쟁이 요동 지역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그 중 북부여성, 오골성, 백석성, 안시성에서 대당항쟁이 발생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81)고 주장하고 있다.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고구려 부흥운동의 결과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가 요동성으로 이동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것은 요동지역에서 부흥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은 677년 2월 '보장왕을 요동 주도독 조선군왕(遼東州都督 朝鮮郡王)에 봉하고 요동으로 귀환하는 조치를 취하여 토착민의 자치에 의한 운영이라는 본래 의미의 기미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82) 이때 당은 '연남생을 파견하여 역시 요동 지역을 안무하게 하였다. 연남생은 주현을 개편하고 구휼 실시, 조세 경감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흩어진 유민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83) 이때 보장왕과 연남생 중에서 실질적인 통치력을 발휘했던 인물은 연남생으로 보고 있다. 84) 한편 보장왕이 부흥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던 세력은 '먼저 요동 지역에서 꾸준히 대당항쟁을 펼쳤거나 당으로 사민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고구려 유민과, 이들로 구성된 성방이라는 군사 조직이 실질적인 군사적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아울러 친고구려적 성향을 지닌 일부 말갈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세력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 하였다.' 85)고 제시하고 있다.

'679년 시작된 보장왕의 부흥운동은 680년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대한 당의 대응을 살펴보면, 행군 파견과 같은 군사 행동은 실시하지 않았다.' 86)고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부흥운동이 군사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에 정보가 누설되어 당조정에 알려졌다고 봐야 한다. 한편, 보장왕의 부흥운동에는 '영주말갈이 함께 공모' 87)하였다고 연구한 내용도 있다.

80) 김강훈, 2018, 25쪽.

81) 김강훈, 2013, 316쪽.

82) 김강훈, 2013, 323쪽.

83) 김강훈, 2013, 324쪽.

84) 이는 보장왕과 연남생이 당에서 받은 관직에서도 드러난다. 보장왕은 당으로부터 사평태상 백 원외동정(司平太常伯 員外同正)이라는 명예직을 제수 받았다. 이는 정3품의 관직이지만 실제 직사(職事)가 없는 원외관이다. 이에 비해 남생은 특진우위대장군겸검교우우림군(特進右衛大將軍兼檢校友羽林軍)에 제수되어 정2품의 문산계(文散階)를 지녔으며 당 황제를 장내공봉(仗內供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김강훈, 위 논문, 325쪽)

85) 김강훈, 2013, 333쪽.

86) 김강훈, 2013, 337쪽.

87) 임금표, 2022, 242쪽.

(4) 경제

경제측면에서 고구려는 북방 유목민족적 성격이 남진정책으로 평양 천도를 계기로 농업사회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무적·역동적 강건한 기질의 약화와 남북간 이질문화간의 문화충돌이 국가패망의 원인으로 작동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부흥운동 기간의 경제적 여건은 고구려가 패망하기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IV. 고구려의 패망에 대한 분석과 안보적 함의

1. 고구려의 패망에 대한 분석

1)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패망원인 조망

본 연구는 고구려의 멸망과정을 위기관리 이론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삼국사기』 등 1차 사료를 근거로 역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석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였다. 아래 [표 5]는 역사학 관점에서 고구려의 멸망원인론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고구려 멸망원인론(출처 : 이문기, 2008, 93쪽.)

외인론(外因論)		내인론(內因論)	
장기적·구조적 측면	단기적·직접적 측면	장기적·구조적 측면	단기적·직접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당제국과의 전쟁·인적·물적 손실과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의 침략과 공작 •연개소문의 대당 강경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귀족의 사치 •6세기 이래 왕정의 피로 •다종족 국가로서의 취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집권체제 구축 실패, 북방민족의 이탈 •평양천도 후 고구려 민족·문화 성격의 변질 •흉작과 기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개소문의 정변, 집권 정치 운영의 문제 •남생 형제의 갈등

위 표는 고구려의 멸망원인을 외인과 내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장기적·구조적 측면과 단기적·직접적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를 통해 고구려 보장왕 기간 동안 나당의 간접전략이 고구려의 국력요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 멸망의 원인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위기관리를 확인하였다.

예방단계인 연개소문 집권기 23년 동안 고구려는 수·당과 지속적인 패권 다툼을 하였다. 당나라는 고구려와 전쟁 전 진대덕 등 신하들을 보내어 고구려의 상황을 파악하는 간첩행위

를 하였다. 대비단계는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이 막리지로 활동하던 기간이다. 연남생이 정국안정을 위해 지방 순행을 하던 중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 두 동생들을 불신하게 되었고, 연남건·남산 형제들도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 형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연남생이 국내성으로 피신하게 된다. 여기에서 언급된 ‘어떤 사람’이 나당의 간접전략에 따라 고구려의 내분을 조장한 인물로 판단된다. 대응단계는 차남 연남건이 막리지로 집권하던 기간이다. 666년 12월 고구려의 연정토는 12개 성의 주민들과 함께 신라에 투항하였다. 이것은 고구려 귀족사회의 분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구려는 나당과의 전쟁 전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고구려는 나당연합군과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승려 신성이 연남생과 내통하여 평양성 문을 열어줌으로써 멸망하게 되었다. 복구단계는 고구려 부흥군의 활동기간인 1단계와 차후 요동지역 안정화를 위해 파견되어 온 보장왕에 의한 2단계 부흥운동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패망은 연개소문의 집권으로부터 나당의 간접전략과 이에 영향받은 귀족사회의 내부적 분열, 연개소문 아들들 간의 권력다툼으로 서서히 멸망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멸망원인을 보장왕 시대동안의 위기관리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시간속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도출해 보았다.

2) 적국의 간접전략에 대한 대비 부족

고구려는 패망 과정에 적국인 나당의 간접전략에 대비가 부족하였다. 첫째, 연개소문 집권 전부터 당나라가 고구려의 대비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진대덕’이 고구려의 성읍마다 관리들에게 비단을 주면서 세세한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처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 연개소문 아들들 간의 내분을 가져온 ‘어떤 사람’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삼국사기』에 흑(或)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인데 특이한 것은 장남 남생에게도 ‘어떤 사람’이 동생들과의 불신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였고, 동생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장남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부분은 나당의 간접전략 결과 고구려 내부의 단결을 저해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장남 남생이 국내성으로 피신한 것이다. 국내성은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수도였다. 때문에 연남생이 피신하여 기반을 확립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것은 장남 남생이 평소 당나라와 가까웠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당나라가 고구려와 전쟁 시에 장남 연남생이 당군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한 것은 내부적 갈등을 넘어 연남생이 당나라에 매수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넷째, 연정토가 신라에 투항한 것이다. 연정토는 666년 12월에 안변 지역의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하였는데 이 부분도 연정토가 신라와 내통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적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국가간의 간접전략과 침식, 그리고 간첩운용은 기록으로 보존되기

가 제한된다. 때문에 근거를 나타내 보이기에는 제한되지만, 역사적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3) 패권유지를 위한 전쟁과 국력요소의 소진

고구려는 비록 멸망 하였지만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에 강력하게 대응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서도 제시하였듯이 고구려는 국초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군사적 국세 팽창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독자적 생존권과 패권의 보존 및 그 확산을 담보하는 나름대로의 ‘대륙정책’을 관철해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다만, 이에 따른 정치적, 군사적 대비는 부족했고 그 결과 국가패망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최근 중국에서 이 전쟁을 중국의 내부적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은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려는 고구려의 대륙정책과 당의 세계정책이 정면충돌하면서 빚어낸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지, 결코 당과 국내 할거 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내전이 아니었던 것이다’⁸⁸⁾고 주장하는 연구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고구려가 국가를 보존하고 요동과 한반도 북부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국가인 당나라는 물론, 백제, 신라와 원만한 외교 관계 정립이 필요했다. 하지만, 외교적 패착과 연개소문 가문의 권력독점은 지배층의 분열을 가져와 효과적인 대당 패권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고구려는 신라와 적대관계를 견지하여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는 외교적 패착을 자초하였다. 고구려는 중원의 패권을 다투던 당과의 전쟁 중 국가목표를 위해서 신라와 연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춘추가 백제 원병을 요청하였을 때 적대관계를 갖게 됨으로 인해 외교적 실리를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연개소문 정권이 신라를 적대세력으로 돌린 것에 대해 고구려 멸망의 대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큰 실책으로 평가’⁸⁹⁾한 연구도 있다.

4) 고구려의 부흥운동에 대한 해석

고구려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1, 2단계로 연구가 필요하다. 1단계 부흥운동은 검모잠과 안승에 의해 군사적 대응으로 진행되었다. 비록 당과의 전쟁에 대한 인식 차이로 안승이 검모잠을 제거하는 등 내부의 갈등으로 부흥운동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고구려 유민에 의한 부흥운동이 진행된 사실은 중요하다. 신라가 안승을 현재의 전북 익산지역으로 안내하여 보덕국을 세우게 하고 부흥운동을 지원한 배경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88) 박경철, 2007, 197쪽.

89) 이문수, 2023, 217쪽.

다. 한편,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을 통해 삼한통일을 희망했던 신라의 입장과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막아야 했던 당나라와의 입장 차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단계 부흥운동은 보장왕이 677년 요동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파견된 이후 진행되었다. 비록 군사적 활동 없이 계획단계에서 발각되어 보장왕이 공주로 유배를 감으로써 종료되었지만,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고구려의 왕과 백성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 기억되어야 한다.

2. 안보적 함의

1) 고대국가의 전쟁연구를 통한 한반도 안보전략 모색

한반도 고대국가였던 고구려의 패망 과정에 대한 연구는 현재 한반도에서 대치하고 있는 남북 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구려가 위치했던 곳에 대한 장소적 접근과 자료적 근거 확인이 제한되지만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고대국가의 국가별 관계가 지금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당나라는 지금의 중국, 고구려는 북한, 신라는 대한민국과 유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간접전략의 실체를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수·당과 70년 패권전쟁을 진행하여온 고구려는 나당의 간접전략으로 인해 내부적 분열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연구하였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세력인 북한과 중국의 의도와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신라가 나당동맹을 통해 국가를 보존하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국가를 보존하고 남북통일의 대업을 달성하여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로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2) 당나라의 간접전략과 중국의 초한전의 관계

고구려의 멸망에는 당나라의 간접전략이 작동되었다.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이 궁지에 몰렸을 때 당으로 투항한 것은 평소 당의 간접전략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2025년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1,400여년전과 유사하다. 중국은 초한전⁹⁰⁾으로 대한민국을 친중국 속국화 하려 한다. 중국은 ‘새로운 전쟁 수행 양상과 유형’의 24전법을 제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

90) 초한전(超限戰)은 ‘제한이 없는(혹은 제한을 초월한) 전쟁’ (unrestricted warfare)이라는 뜻이다. 1999년 차오량(乔良, 喬良), 왕상수이(王湘穗) 두 명의 중국 공군 대령이 공동 저술한 군사전략 저서 「초한전」에서 유래했다.

[표 6] 새로운 전쟁 수행 양상과 유형(출처: 이지용, 2023, 60쪽.)

군사전 (Military)	유사 군사전 (Quasi-military)	비 군사전 (Non-military)
핵전 (Nuclear)	외교전 (Diplomatic)	금융전 (Financial)
전통전 (Conventional)	네트워크전 (Network)	무역전 (Trade)
생화학전 (Bio/Chemical)	정보전 (Intelligence)	자원전 (Resources)
생태환경전 (Ecological)	심리전 (Psychological)	원조전 (Foreign Assistance)
우주전 (Space)	최첨단 기술전 (Hi Tech)	법률전 (Legalistic)
전자전 (Electronic)	밀수전 (Smuggling)	경제제재전 (Embargo)
게릴라전 (Guerilla)	마약범죄전 (Drug Warfare)	미디어전 (Media)
테러전 (Terrorist)	공갈협박전 (Simulated Intimidation)	이념전 (Ideological)

중국이 초한전의 24전법을 근거로 대한민국을 향해 전쟁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중국학생 등이 우리 군사시설들을 촬영하였는데도 관련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⁹¹⁾은 위에서 제시한 법률전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4전법을 본 논문에서 제시한 4가지 국력요소의 영역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아래 [표 7]과 같이 전 영역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포괄안보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안보수단 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수단을 망라하여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켜내야 한다.

[표 7] 국력요소별 24전법

외교(D)	정보(I)	군사(M)	경제(E)
외교전	네트워크전	핵전	생태환경전
공갈협박전	정보전	전통전	밀수전
원조전	심리전	생화학전	마약범죄전
	최첨단 기술전	우주전	금융전
	법률전	전자전	무역전
	미디어전	게릴라전	자원전
	이념전	테러전	경제제재전

3) 국력요소의 균형된 발전

국가의 지속적인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력요소의 균형된 발전이 중요하다. 고구려는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중국과 전쟁을 해 왔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고구

91) 매일신문(2025. 3. 16), “중국간첩은 처벌 못하는 나라(서명수 칼럼)”

려의 국력요소는 소진 되었고 결과적으로 국가패망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4가지 국력요소가 균형되게 발전되어 국가패망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해야 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도 중국과 북한의 간접전략에 대한 대비와 대응은 물론, 국력요소의 균형된 발전도 지속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연합방위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력요소의 외교와 군사는 물론 경제분야까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4) 연개소문의 절대권력과 김정은 절대권력의 항방

절대 권력체제 아래서 정보와 권력의 흐름은 제도보다 인맥에 얽혀 있게 되며, 그것이 파벌 형성을 부채질하게 된다. 따라서 절대적 권력의 공백기에는 그러한 파벌 간의 투쟁이 결정적 파국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고구려가 위치했던 지역에 현재는 북한이 있다. 연개소문이 사망한 이후 그 아들들의 분열로 고구려가 멸망했듯이, 김정은 사후 또는 북한의 격변으로 인한 내부 혼란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V. 맺음말

고구려가 668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패망하게 된 것을 위기관리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고구려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재위시대 동안에 나당이 고구려를 향해 구사하였던 간접 전략과 이에 따른 고구려의 국력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역사학적 연구로 이해되고 있는 고구려의 패망과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으로 고구려의 패망과정을 분석하였다.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은 위기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순환과정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고구려의 멸망을 대응단계로 설정하고, 그 전에 진행된 연개소문 집권기의 예방단계와 장남인 연남생 통치기간의 대비단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1단계인 안승, 검모잠의 군사적 활동기간과 2단계인 보장왕의 활동기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적국이 시행하는 간접전략에 대한 위협인식과 대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고구려는 당나라와 신라의 지속적인 간접전략에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침식되어 내부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특히, 연개소문 사후 발생한 아들들 간의 권력다툼은 적국의 간접전략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고구려는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오랜기간의 전쟁으로 국력요소가 소진되어 패망하게 되었다. 당나라와 오랜 전쟁은 고구려 국력요소의 소진을 가져왔다. 적국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귀족사회의 내분을 가져와 국론은 통합되지 못했다. 연개소문 아들들 간의 갈등도 그 근저에는 갈등하는 귀족사회의 단면이 노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넷째,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1, 2단계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단계는 군사적 부흥운동기간으로 안승, 검모잠이 주도하였다. 2단계는 보장왕이 주도한 부흥운동이었다. 비록 보장왕의 부흥운동이 내부자에 의해 당에 보고되어 보장왕이 공주로 유배됨으로 그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고구려는 국가부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다섯째, 고구려 부흥운동과 신라의 나당전쟁이 중첩된다는 것이다.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멸망한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전쟁을 하였으나, 신라는 고구려를 활용하여 당과의 전쟁을 진행하고 삼국통일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 위기관리 연구를 통해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명멸했던 국가의 위기관리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군사적 입장을 정리해 가야 한다. 고구려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과 적대세력의 간접전략을 명확히 인식하여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과 중국 등 적과 적대세력의 간접전략을 인식하고 식별하여 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간접전략의 침식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초한전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셋째, 국력요소의 균형된 발전이 지속되어야 한다. 고구려의 멸망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국가의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되는 전쟁은 국가의 패망을 가져오게 된다. 넷째, 연개소문의 절대권력이 무너진 뒤 발생한 고구려의 내부 혼란을 참고하여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는 말처럼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절대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내부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본 논문의 의의는 고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현대의 군사이론과 교리로 해석하여 그 교훈을 도출한 것이다. 논문의 한계는 1차 사료의 제한과 오래전 역사적 사실인 관계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기대하는 바이다.

투고일: 2025.05.14, 심사개시일: 2025.06.02, 게재확정일: 2025.06.11.

【참고문헌】

(자료)

『삼국사기』

(국문)

- 국방대학원, 1975, 『전략론』,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 권덕영, 2015, 「고구려·백제 유민사 연구의 또 다른 시각」, 『사학연구』 제119호.
- 권창혁, 2021, 「670~673년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지원 전략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제51호.
- 김강훈, 2013, 「679~681년 보장왕의 고구려 부흥운동」, 『역사교육논집』 50권.
- 김강훈, 2018, 「고구려 멸망 직후 당의 고구려 고지 지배 시도와 유민의 동향」, 『대구사학』 133권.
- 김병곤, 2013, 「668년 고구려 멸망시 사천원전의 재구성 및 의의」, 『고구려발해연구』 제46집.
- 김열수, 2022, 『국가안보론』, 법문사.
- 김영하, 2000, 「고구려 내분의 국제적 배경」, 『한국사연구』 제110호.
- 김진한, 2016, 「고구려 멸망과 연개소문의 아들들」, 『한국고대사탐구』 제22집.
- 김태진, 2023, 『포괄안보 관점의 국가위기관리』, 북코리아.
- 김태진, 2024, 「나당연합군의 전략과 황산전투」, 『군사연구』 제158집.
- 박경철, 2007, 「여당전쟁의 재인식」, 『동북아 역사논총』 제15호.
- 방용철, 2015, 「연개소문의 집권과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동」, 『한국고대사연구』 80.
- 방용철, 2017, 「연남생 형제의 내분과 지방세력 동향」, 『신라사학보』 제39호.
- 배근홍, 2002, 「격동의 50년-고구려와 당 관계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14집.
- 배근홍, 2021, 「당 고종대 한반도 상황변화와 고구려의 대응」, 『청계사학』 23권.
- 손자, 김광수 역, 1999, 『손자병법』, 책세상.
- 이문기, 2008, 「고구려 멸망기 정치운영의 변화와 멸망의 내인」, 『한국고대사연구』.
- 이문수, 2023, 「7세기 중화적 천하질서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 『군사』 제216호.
- 이상훈, 2011, 「나당전쟁의 군사적 원인과 신라의 전쟁준비」, 『역사와 경계』 제79집.
- 이상훈, 2019, 「나당전쟁의 개전 시점과 주체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제32집.
- 이상훈, 2023, 「고구려 부흥운동기 사야도의 위치에 대하여」, 『북약사론』 제18집.
- 이지용, 2023, 『중국의 초한전』, EPOCH.
- 임기환, 2014, 「7세기 동북아 전쟁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역사문화논총』 제8호.
- 임기환, 2023, 「고구려 멸망기 신라의 군사 활동」, 『한국사학보』 제90호.
- 임금표, 2022, 「보장왕의 고구려 부흥운동과 ‘영주말갈」, 『고구려발해연구』 제72집.
- 정원주, 2014, 「남생의 실각 배경과 그의 행보」, 『한국고대사연구』 75.
- 정원주, 2019, 「안승의 항방과 고구려 부흥운동」, 『군사』 제110호.
- 주보돈, 2017, 「나당동맹의 시말」, 『대구사학』 제126집.

합동참모본부, 2022, 『합동교범0 군사기본교리』, 국방출판지원단.

E. H. 카, 2015,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영문)

A. Beaufre, 1966, 『AN INTRODUCTION TO STRATEGY』, FREDERICK A. PRAEGER.

(기사)

서명수, 2025, 「중국간첩은 처벌 못하는 나라」, 『매일신문, 3월16일』.

조선일보, 2025, 「간첩법 없는 한국서 중 10대들 군 시설 염탐」, 『조선일보, 4월9일』.

【Abstract】

**A Study on the Crisis Management of Goguryeo's Defeat Process
- Focusing on the Indirect Strategy of Nadang and the Elements of
Goguryeo's National Power during King Bojang -**

Kim, Tai-jin

(Visiting Professor of Military Science, Konyang University)

Goguryeo was destroyed by the attack of the combined forces of Tang in 668. There are various analyses on the cause of Goguryeo's destruction, but it is the universal view of the history world that it is attributed to the emergence of Yeonggaesomun and the infighting of their sons. On the other hand, research that approached Goguryeo's defeat process with a crisis management theory is limit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period from the accession of King Bojang, the last king of Goguryeo, to the revival movement by King Bojang after the fall of Goguryeo as a crisis management theory, and studied how the Nadang, which defeated Goguryeo, influenced the elements of Goguryeo's national power as an indirect strategy.

The 26 years of King Bojang's reign and the 13 years of the revival movement after the fall of Goguryeo were divided into four stages of overall crisis management theory: prevention-preparation-response-recovery, and how the Nadang's indirect strategy affected Goguryeo's national power, 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and economy, at each stage. Through this, the meaning of the phenomenon learned through the cause of the defeat of Goguryeo on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as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study, Goguryeo was destroyed by the inability to prepare for war, which was a direct strategy, caused by the internal strife caused by the Nadang's indirect strategy. During the period when Yeonggaesomun, which occupied most of the reign of King Bojang, was a prime minister, the Tang Dynasty and the Northeast Asian hegemony fought. During the period when the eldest son, Namsaeng, was a prime minister after Yeon Gaesomun's death, internal division caused disputes between his sons and was unable to prepare for the Nadang's attack. During the period when the second son, Nameon, was a prime minister, a